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 11월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장기 체납자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공매를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납부 안내문 발송과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에도 힘쓴다.

자동차세 체납 관리도 강화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추석 중증장애인 생산물 판매행사 개최

고창군이 지난 23일 군청 광장서 '추석맞이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행사'를 열고 도내 중증장애인의 생산물에 대한 인식개선·구매 활성화에 나섰다.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 생산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쌔터자리', 익산시 '해피드림', 완주군 '행복한집', 진안군 '굿데이' 등 도내 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 각 시설은 홍삼, 육포, 황태, 곡물, 빵, 견과류 등 평소 인기가 많은 품목들을 추석 선물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행사에 참여하여 제품을 구입한 주민은 "이번 판매행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물의 품질 우수성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물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역사 · 정서 담은 명예도로명 부여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 열고 '전봉준길 · 정극인길 · 무성서원로' 새로 결정

정읍시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리고 후대에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 의미 있는 명예도로명을 새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2025년 제1회 정읍시 주소정보위원회'를 열고 '전봉준길', '정극인길', '무성서원로' 등 3곳을 명예도로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문화유산을 도로명에 담아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명예도로명은 법정 도로명과 달리 공식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특정 도로 구간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반영해 별칭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에

는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정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3개 구간에 대한 명예도로명을 확정했다.

먼저 '전봉준길'은 이평면 장내리 전봉준 고택 일대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전봉준은 1894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탐관오리의 폐단을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려 했던 인물로,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명예도로명은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정읍의 위상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극인길'은 칠보면 무성리의 정극인 묘역으로 가는 길에 부여됐다. 정극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시문학 작

품인 '산중곡'을 지은 인물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도로명은 한국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을 기리며, 정읍이 빼어난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인재를 길러낸 땅임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성서원로'는 칠보면 무성리 무성서원 인근 구간에 이름이 붙여졌다. 무성서원은 고려 말기에 건립된 후 조선 시대 성리학의 학문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 서원으로,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무성서원로라는 명예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가치를 되새기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체결

부안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협약서서 서명 · 공동협력 약속

부안군은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자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기업을 연계하는 범부처 정책사업으로 단순한 행정적 교류를 넘어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특산품 홍보 등 지역 활력 증진과 현장 중심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본부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생발전과 공동협력력을 약속했다.

특히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에 부안군 특산물 구매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전북지역본부는 향후 기관 행사 개최, 휴가철 직원 방문 농·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를 시기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은 전북지역본부와 관광상품, 문화관광지, 지역특산물,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중앙부처 및 기업과도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센터 내년 시설개선 본격 추진

정읍시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정읍을 비롯해 고창·부안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자원 21개 품목을 공동 처리하는 거점시설로, 2023년 개소 이후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재활용 물품과 근로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고 선별 근로자 38명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선별공간 400㎡ 신축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화수 시장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센터는 선별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위험이 커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로를 존중하는 힘! 양성평등'

부안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한마음대회 개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가 24일 부안군 스포츠타파크 실내체육관에서 각 읍면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군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양순)가 주관한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7명에 대한 표창 수여, 슬로건 퍼포먼스, 축하공연, 화합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서로를 존중하는 힘! 양성평등'을 주제로 신장철 교수의 특강이 열려 양성평등의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행사의 깊이를 더했다.

박양순 회장은 "양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스며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군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



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양성평등은 제도가 아닌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부안군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15개 여성단체 2,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과 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정읍시가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자원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농촌지도자연합회(대표 박양우)가 맡아 진행한다. 파쇄 대상은 과수원과 밭작물 재배지에서 나오는 잔가지, 고춧대, 깻대, 옥수수穗대 등 길이 3m 이내의 부산물이다. 이를 안전하게 처리해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 재활용을 함께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 연결지(100m 이내) 농가가 우선이며, 이어 고령층과 취약계층 농가, 일반 농경지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은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월 산불조심 기간이자 영농부산물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10만㎡가 넘는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산불 예방과 현장 안전 관리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농가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19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전북 고창군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24일 오후 고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결단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선수단 및 지도자, 유관기관 임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경기하며, 안전하게 즐겨온 마음으로 임해 달라"며 "이번 장애인체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6~28일까지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도내 선수단 간 열띤 경쟁과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14개 종목에 선수, 감독, 코치 등 217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출전한다. 고창군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 환경과 지원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